논문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의 의미와 가치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Value of Korean Indie Band Records

장형오(Jang, Hyung Oh)** · 임진희(Yim, Jin Hee)***

1. 서론
2. 인디 음악 관련 기록의 의의
   1) 인디 음악의 개념
   2) 한국 인디 음악의 특징
3.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프로세스
   2) 공연 활동에서의 특징
   3) 가사에서의 특징
4. 심층인터뷰를 통한 인디 밴드 내러티브
   1) 심층인터뷰 프로세스
   2) 피켓을 대신한 기타
   3) 미래의 비틀즈를 꿈꾸며
   4) 평생 함께할 친구
5. 결론

*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제1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dookp123@nate.com).
*** 교신저자.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yimjhkr@empas.com).
■투고일 : 2017년 3월 31일 ■최초심사일 : 2017년 4월 4일 ■게재확정일 : 2017년 4월 8일.

www.kci.go.kr

〈초록〉

음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환경 속에서 각각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지고 불려져 왔다.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지는 음악은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음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느끼며 서로 소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과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본래 음악과 같은 예술 작품에는 창작자의 의도가 작품의 탄생 배경이 되고, 그 작품이 가지는 주된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중음악은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주류의 음악 유통 시스템 아래서 자본에 의해 상업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창작자의 의도가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반면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의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 음악은 대중음악과 반대로 창작자의 의도가 순수하게 온전히 담길 수 있다. 이런 인디 음악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인디 밴드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인디 밴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당대 사회상에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 비주류, 사회현상, 일상, 질적 연구, 내러티브

〈Abstract〉

Music has been created and played in various environments over a long time, with each piece having distinct sentiments and stories. Different people can have varying interpretations of one song depending on their viewpoints shaped by personal experiences and attitudes. In fact, the audience's understanding may differ greatly from the songwriter's intended message. Knowing this, music can serve as a reflection of one's contemporary sentiment. In the works of art such as music, the creator's intention becomes the background of the work or, sometimes, the main meaning. However, given that popular music is

www.kci.go.kr

often under the control of companies and distributors and influenced by "capital," creators are required to adjust to mainstream preferences and, therefore, cannot fully express themselves in their music. On the other hand, indie music allows creators to pursue their own music given its "independence" from capital. With this, this study aim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on the activities that Korean indie bands carry out, and examine their meaning and significance in society.

Keywords : Minority, Social Phenomena, Everyday lives, Qualitative study, Narratives

1. 서론

2016년 가을부터 대한민국은 '비선실세'와 '박근혜 게이트'로 들끓고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다음날인 11일 탄핵 인용을 자축하는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렸다. 음악인 2천 3백명은 11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공화국 부활을 위한 음악인 시국선언'을 하였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으로 만들어 알리고 있다. 또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이승환, 전인권, 정태춘, 조PD, 크라잉넛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발언과 공연을 진행하였다.

음악은 오랜 시간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민요와 판소리, 잡가 등 국악부터 현대에 이르러서는 트로트, 포크, 발라드, 락,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로, 그리고 전쟁가요, 민중가요 등 시대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생겨난 많은 음악들은 각각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지고 불려져 왔다.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지는 음악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는 음악을 연구함으로써 특정 시대의 사회상과 더 나아가서는 구성

www.kci.go.kr

원들의 정서를 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록학계에서도 몇 해 전부터 국내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오고 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비추어 음악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음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느끼며 서로 소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중음악은 그 음악이 유행한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이형수 2012). 하지만 음악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과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1971년 가수 양희은이 부른 "아침이슬"은 대학생과 지식인 사이에서 널리 애창되는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되었고, 시위 현장에서도 많이 불려졌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5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사람 많은 곳에서 "아침이슬"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시위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 노래는, 창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용자들에 의해 그 '시련'과 '나 이제 가노라'의 선언이 민주화 운동의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었고, 창작자 김민기는 이 노래만으로도 오랫동안 합법적 활동이 불가능한 불온한 인물로 간주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

음악뿐 아니라 미술, 문학, 영화 등의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의도가 작품의 탄생 배경이 되며, 또한 그 작품이 가지는 주된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자의 의도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은 '대중들이 향유하며 공감하는 것을 목표로 음악창작자(작곡자와 작사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투영하여 의도적으로 창작하고 유통하는 음악'이라 정의한다(이형수 2012). 하지만 대중음악은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주류의 음악 유통 시스템 아래서 자본에 의해 상업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창작자의 의도가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자본에 의해 제작된 상업음악이 주류를 형성하고, 다양성이 소멸되어버린 음악을 보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의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 음악(전대영 2015)은 대중음악과 반대로 창작자의 의도

www.kci.go.kr

가 순수하게 온전히 담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사회상을 알아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음악을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창작자의 의도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음악에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인디 음악을, 그리고 인디 음악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인디 밴드에 대한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인디 음악과 인디 밴드의 기록화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다만 대중음악과 대중음악가의 아카이브 연구는 일부 이뤄지고 있고, 음악학계와 예술학계, 사회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디 음악과 인디 문화, 음악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조정임은 처음으로 대중음악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조정임 2011). 이형수와 전호순은 대중음악의 기록관리가 한국 대중음악사를 모두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고, 대중음악가의 기록이 대중음악 기록의 일부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중가수가 속한 당시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뜻을 같이하며 대중음악가 아카이브를 제시하였다(이형수 2012, 전호순 2012). 주혜성은 온라인 음악 아카이브로서 K-POP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주혜성 2013). 전병렬은 팬덤의 특성으로 팬이 갖고 있는 '자본 축적'의 특성을 활용한 대중음악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전병렬 2016). 진현주는 기존의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가수와 노래에 대한 정보만 관심을 가지면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이야기 컬렉션을 제시하였다(진현주 2016). 음악과 음악가의 기록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으나, 자본에 의해 상업적으로 제작되는 대중음악은 자본이 창작자의 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시대의 사회상을 온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인디 밴드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인디 밴드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기록화를 해 봄으로써,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은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ww.kci.go.kr

2. 인디 음악 관련 기록의 의의

1) 인디 음악의 개념

인디 음악은 인디펜던트 음악(Independent Music)의 줄임말로 독립 음악이란 뜻을 가지며, 어떠한 간섭 없이 독립을 지향함을 의미한다(안혜영 2011). 여기서의 '독립'이란 상업적인 대형 기획사의 자본과 유통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 결국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주류의 음악 유통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자본에 의해 제작된 상업음악이 주류를 형성하고, 다양성이 소멸되어버린 음악을 보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의 음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디 음악이라는 정의가 성립되기 시작하였다(전대영 2015).

인디 음악이 기획이나 창작 부분에 있어서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인디 음악만을 위한 유통망 구축에 대한 시도는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였고, 메이저 유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국내에서 인디 음악의 정의를 할 때 유통 측면에서보다는 기획이나 창작에 대한 뮤지션의 태도를 두고 인디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옳다는 박준흠의 주장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태도란 시장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작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책임을 맡는 것을 말한다(서보승 2012).

인디 밴드는 기존의 상업적인 대중음악과는 달리, 자신의 음악적 진정성과 예술적 본질을 상대적으로 지키기 쉬운 수단으로서 인디 음악의 시스템을 선택하여(추승엽 2008) 독립된 자본으로 음악을 하는 밴드들을 말하며, 주류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할 수 있다. 인디 밴드라 해서 밴드의 형태로 활동하는 뮤지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 레이블을 통해 앨범을 발매하는 뮤지션과 독자적으로 앨범을 발매하는 경우도 해당

www.kci.go.kr

되며, 앨범의 기획, 유통, 제작 과정에서 뮤지션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음악 장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안혜영 2011).

인디 밴드가 가지는 저항의 성격은 그들의 활동에서 나타난다. 자율성을 가지고 창작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책임을 다하며, 주류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배층과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그들의 음악에 가사라는 형태로 녹여낸다. 더욱 나아가서는 인디 밴드가 대중과 마주하는 공연, 인터뷰, 방송 등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이야기 속에도 직·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디 씬이란 말은 인디 문화가 생산되고, 수용되고, 유통되는 행위와 관련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인디 문화에 대한 내적 동향을 생산, 수용, 유통의 영역 간의 상호적 흐름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디 뮤지션들이 음악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사람들과 교류의 장이 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안혜영 2011).

인디 레이블은 메이저 레이블로부터 독립된 제작과 유통 체계를 확보한 소규모 음반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뿐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도 함께 가진다. 이는 거대 자본에 경제적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그로부터 예술적 독립을 지향한다는 뜻도 가진다. 즉, 인디 레이블은 메이저 음반사의 자본, 유·무형의 권력이 가하는 정치적·도덕적 검열을 거부함으로써 뮤지션의 자유로운 음악 창작 활동과 예술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뮤지션들은 저예산 음반 제작과 유통, 뮤지션의 예술적 자율성을 지향하는 인디 레이블을 통해 이윤 중심의 주류 시스템 밖에서 자신의 자율성과 실험성을 지켜나갈 토대를 만들 수 있다(장호연, 이용우, 최지선 1999).

2) 한국 인디 음악의 특징

국내에서 인디 음악은 1990년대 초에 생겨난 문화 운동의 담론 하에서

www.kci.go.kr

얘기되기 시작하였다(박준흠 2006). 1963년 '서울대 김상진열사장례식'을 시작으로 하는 민중문화운동은 7, 80년대와 같은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대안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운동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또한 다루었던 작품의 소재의 다양함은 이후 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발생하였다. 또한 민중문화운동의 대항문화로서 나아가 대안문화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문화적 실천성은 문화교육체계, 독자적 유통구조의 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즉 민중)을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해 수용자의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대안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민중문화운동의 문화적 생산물들이 기존의 유통체계에부터 배제되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중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독자적인 유통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김민규 2002).

한편 민중문화운동의 많은 문화적 · 예술적 성과들은 기존의 사회내의 관행들을 바꾸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민중문화운동은 단순히 스타일의 개량이나 유행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사회적 · 문화적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꾀하는 집단적 움직임이다. 민중문화운동이 인디문화의 형성에 미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일제 강점기부터 7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음반사전심의의 철폐로 인해 사전 검열 없이도 누구나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 내에 지배권력의 문화적 코드화로부터 벗어나 권력에 대립적인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형성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환경은 인디 문화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김민규 2002).

인디 음악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는데, 당시 인디 음악에 관심을 갖던 많은 사람들은 1990년대 음악 평론가 강헌 씨로부터 유행한 '1980년대 사회 변혁 운동의 대안'으로서 채택된 '록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인디 음악에 접근하고 있었다(박준흠 2006). 인디 음악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당시에 이뤄지던 담론을 통해 인디 음악은 단순한 대형 기획사의 자본과 유통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구조적인 부분의 저항에서 더

www.kci.go.kr

나아가 주류, 지배층 그리고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저항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디 음악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 즉 주류 문화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난 음악문화를 말한다.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거대 자본의 영향 하에서는 기획 및 창작의 자유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류인 메이저로부터 독립한 비주류가 형성되었다. 기존의(근대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적 규범이나 정치적 보수주의로부터의 새로움, 즉 기존의 사회 윤리로부터의 이탈이고 거부이며, 특히 저항이란 단어로 수렴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곧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새로움으로 나타났다(김민규 2002).

해외에서 인디 음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단순히 주류의 음악 생태계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기들의 음악을 추구한다는 구조적인 이유와 다르게 국내에서의 인디 음악은 한 시대에서 주류와는 다른 모습이면서 새로운 문화인 비주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사회와 지배층, 권력구조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준다. 인디 밴드의 저항의식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고, 혹은 문제에 공감을 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디 음악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인디 밴드의 기록은 단순히 대상을 기록하여 남긴다는 것 이상으로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주류가 아닌 작은 것들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프로세스

한국 인디 밴드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다면 한국

www.kci.go.kr

인디 밴드의 특징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디 밴드 활동과 관련된 자료 중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 인디 음악과 인디 밴드의 주요 기록화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자료수집 프로세스는 수집 전 단계, 수집단계, 수집 후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집 전 단계로, 먼저 인디 밴드 선정을 위해 한국 인디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주류의 모습과 사회와 지배층, 권력구조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인디 밴드를 살펴보았다. 사회참여 요소를 고려하여 1차로 선정한 대상은 정기공연 수익금을 보육원, 복지관, 사랑의 집, 연탄나눔운동 등의 후원을 하고, 현지방문 봉사활동과 각급 복지시설 청소년 대상의 밴드 결성 및 합주 교육/지원, 악기 제공/수리/지원, 연주 교육, 그리고 공연 기회 제공 등의 음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클럽 '라이브앤라우드'와 뜻을 같이하는 클럽소속 인디 밴드로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한 201개의 인디 밴드는 인디스트릿(indistreet.com)과 두인디(www.doindie.co.kr)와 같은 인디 공연정보 전문 사이트와 공연장 및 인디 밴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 인터뷰 기사, 공연 영상, 음원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활동 여부를 파악하여 2차 선정을 실시하였다.

공식적으로 해체를 언급한 인디 밴드는 '해체', 1년 이상 어떠한 활동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소식', 재정비의 시간이나 휴식을 가지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휴식', 1년 이내 밴드의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디 밴드는 102개, 휴식 중인 밴드는 9개, 공식적으로 해체된 밴드는 45개, 1년 이상 밴드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무소식 밴드가 45개로 정리되었다.

2차로 선정한 1년 이내 활동이 확인되는 102개 인디 밴드를 대상으로 간행물, 인터뷰 기사, 뉴스 기사, 인디 밴드 및 공연장 홈페이지, SNS, 공연 영상, 음원, 가사 등을 조사하여 인디 밴드의 적극적인 저항의식의 표출, 즉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고, 혹은 문제에 공감을 하여 사회참여를 하는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디 밴드

www.kci.go.kr

를 선별하였다. 또한 인디 음악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스노우 볼(Snow ball) 형식으로 소개받은 대상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총 8개의 인디 밴드를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스노우 볼 형식은 연구대상의 선정을 소개를 통해 표본으로 선택하는 비확률적 샘플링을 방법으로, 인디 음악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연구자 일인의 관점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연구대상을 확보하고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단계로, 3차로 선정한 8개의 인디 밴드를 대상으로 간행물, 인터뷰 기사, 뉴스 기사, 인디 밴드 및 공연장 홈페이지, SNS, 공연 영상, 음원, 가사 등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간행물은 '매거진 충무로'과 '네이버 매거진 캐스트', '귓결' 등을 살펴보았고, 인디스트릿(indistreet.com)과 두인디(www.doindie.co.kr)와 같은 인디 공연정보 전문 사이트와 공연장 및 인디 밴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인터뷰 기사,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찾아보고, 사운드클라우드(www.soundcloud.com)와 네이버 뮤직(music.naver.com), 유튜브(www.youtube.com)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사진파일, 영상파일, 문서파일 등 전자파일 형태로 수집하였으며, 실물자료는 전자화파일로 변환하였다. 또한 인터넷 기사와 사이트처럼 웹페이지의 형태로 된 자료는 스크랩을 하여 수집하였고, 조사하던 사이트에서 연결되어 있는 유사 페이지를 스노우 볼(Snow ball)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수집 후 단계로, 한국 인디 밴드의 특성을 확인하고 수집될 수 있는 기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선정한 8개 인디 밴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간행물, 인터뷰 기사, 뉴스 기사, 인디 밴드 및 공연장 홈페이지, SNS, 공연 영상, 음원, 가사 등을 조사하여 총 519개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유형은 사진 237개(45.7%), 스크랩 173개(33.3%), 영상 63개(12.1%), 문서 35개(6.7%), 음성 11개(2.1%)로 분류되었다.

www.kci.go.kr

자료 주제별 분류를 한다면, 밴드 관련 사진이 127개(24.5%), 공연 포스터 사진이 98개(18.9%), 공연영상이 61개(11.8%), 공연영상 관련 스크랩이 58개(11.1%), 심층인터뷰 관련 자료가 57개(11%), 가사가 41개(7.9%), 밴드 관련 웹사이트 스크랩이 29개(5.6%), 인터뷰 기사가 25개(4.8%), 밴드 관련 기사가 23개(4.4%)로 분류되었다.

〈그림 1〉 인디 밴드 관련 수집자료 리스트
(일부 발췌)

콜렉션	주제	자료명	자료 유형
단식광대	심층인터뷰	161022_연구참여 동의서_단식광대.pdf	문서
		161024_단식광대 인터뷰 녹취록.docx	문서
		20161022 155535.m4a	음성
		20161022 160048.m4a	음성
		단식광대 사전조사.docx	문서
		인터뷰 필기 자료.pdf	문서
	가사	단식광대 - 새벽달 (가사).pdf	스크랩
	공연영상	단식광대 - 끝 @살롱노마드 20160331.mp4	영상
		단식광대 - 봄의 노래.mp4	영상
		단식광대 Dansik Clown - '새벽달' 'Moon at Dawn'.mp4	영상
	공연영상스크랩	단식광대 - 끝 @살롱노마드 20160331.pdf	스크랩
		단식광대 - 봄의 노래.pdf	스크랩
		단식광대 Dansik Clown - '겨울 찻잔' 'Winter Teacup'.pdf	스크랩
		단식광대 Dansik Clown - '마약' 'Drug'.pdf	스크랩
		단식광대 Dansik Clown - '새벽달' 'Moon at Dawn'.pdf	스크랩
	기사	150828_방 뮤즈_단식광대 소개.pdf	스크랩
		161113_조재연_크리틱 칼 평론.pdf	스크랩
	밴드 사진	160813_인천 평화창작 가요제 본선 진출 기념.jpg	사진
		160925_인천 평화창작 가요제.jpg	사진
		161107_단식광대 프로필.jpg	사진
	웹 스크랩	150814_상상마당_2016 상상실현 페스티벌 참가밴드 소개.p	스크랩
		160926_전성원 심사위원(황해문화편집장)_인천평화창작가	스크랩
		161122_몰_키보디스트 구인공고.pdf	스크랩
	인터뷰	161003_만민보_인터뷰.pdf	스크랩
		161012_시사인천_인터뷰.pdf	스크랩
		161012_오마이뉴스_인터뷰.pdf	스크랩
	포스터	160414_카페언플러그드 공연 포스터.jpg	사진
		160807_조광사진관 자립본부 공연 포스터.jpg	사진
		160825_카페언플러그드 공연 포스터.jpg	사진
		161017_국민TV 콘서트 '사람' 포스터.jpg	사진
예술빙자사기단	심층인터뷰	161031_예술빙자사기단 인터뷰 녹취록.docx	문서
		161028_연구참여 동의서_예술빙자사기단.pdf	문서
		20161028 135828.m4a	음성
		사전조사.docx	문서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자료수집을 진행해 봄으로써 한국 인디 밴드 활동에 관한 기록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지, 즉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을 정의하고, 기록의 범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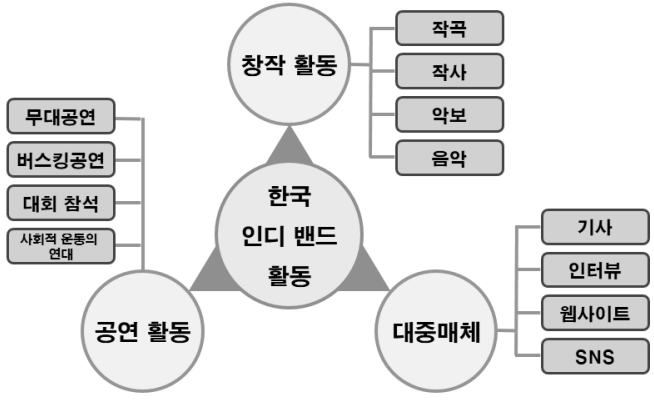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은 밴드의 성격과 목표, 이를 바탕으로 활동한

www.kci.go.kr

부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들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밴드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주로 활동하는 영역과 생산하는 음악이 달라지며, SNS나 인터뷰 같은 매체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은 단순히 노래와 공연을 남기는 부분에서 더욱 확장되어 밴드에 대해 알 수 있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기록의 범주는 주제(subject), 출처(provenance), 기능과 활동(function and activities), 기록물의 유형(type of records), 지리적 범주(geographical area), 시간적 범주(time-period) 등의 다양한 방식(이희덕 2013)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능과 활동'으로 수집 범주를 설정하였다. 인디 밴드의 성격과 추구하는 바는 음악을 만들고, 공연과 글, 대화 등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은 기능과 활동이라는 범주 안에서 온전히 수집될 수 있다. 〈그림 2〉은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에 대한 범주를 '창작 활동', '공연 활동', '대중매체'의 3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2〉 한국 인디 밴드 활동 수집 범주



www.kci.go.kr

〈표 1〉 창작 활동 수집 범주

영역	세부영역	기록 범주
창작 활동	작곡	영감받은 내용, 작사/작곡 노트(초안, 수정안, 확정안), 참고 자료, 관련 회의자료(회의록, 녹취자료)
	작사	
	악보	멜로디 악보, 악기 별 타브(TAB, Tablature)악보, 악기 별 연주 구성안, 합주 녹취자료, 관련 회의자료
	음악	편곡/녹음/편집/믹싱(Mixing)/마스터링(Mastering) 자료, 음원, 앨범, 뮤직비디오, 제작 기획안, 관련 회의자료, 지출 증빙 자료, 저작물 등록

첫 번째로 구분한 범주는 창작 활동이다. 창작 활동은 인디 밴드의 기반임과 동시에 인디 밴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감을 받아 음악의 주제나 메시지, 색체 등을 정한 뒤 이에 따라 작사와 작곡을 진행한다. 멤버 한 명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멤버들과 상의를 통해 진행하며, 코드나 기본적인 음의 진행이 구성된 이후에는 각 악기 파트 별로 연주를 구상한 뒤 합주와 회의를 통해 함께 맞춰나간다. 완성된 곡은 공연에서 바로 활용하기도 하고, 편곡, 녹음, 편집, 믹싱, 마스터링 등의 과정을 거쳐 음원으로 제작하여 남기는 경우도 있다.

〈표 2〉 공연 활동 수집 범주

영역	세부영역	기록 범주
공연 활동	무대 공연	포스터, 사진, 영상, 티켓, 계약서, 공연 기획안
	버스킹 공연	포스터, 사진, 영상, 홍보 물품(밴드 소개자료, 팁 수거함), 허가증
	대회 참석	포스터, 사진, 영상, 수상내역, 심사평, 상장, 대회 안내장, 지원신청서
	사회적 운동의 연대	포스터, 사진, 영상, 사회적 운동 관련 참고 자료

두 번째로 구분한 범주는 공연 활동이다. 공연 활동은 인디 밴드가 스스로를 알리고 인디 밴드 각자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의도에

www.kci.go.kr

따라 수행하는 활동이다. 무대 공연은 밴드를 계속 알리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클럽 공연과 공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행사에서 공연을 한 보상으로 받는 공연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공연이 있다. 버스킹 공연은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가 인디 밴드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과 다양한 공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대회 참석은 인디 밴드 스스로가 자신을 좀더 알리고 능력을 인정받고자 수행하게 된다. 사회적 운동의 연대는 인디 밴드가 보고 겪은 사회 문제에 대해 음악을 만들어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표 3〉 대중매체 수집 범주

영역	세부영역	기록 범주
대중 매체	기사	발간물, 인터넷 뉴스, 영상, 사진, 댓글, 동의서, 사전 질문지, 원고(초안, 수정의견, 확정안)
	인터뷰	
	웹사이트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글, 댓글, 공연 안내, 밴드 소식, 사진, 영상, 밴드 소개
	SNS	

세 번째로 구분한 범주는 대중매체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대중매체를 통한 인디 밴드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양도 늘어나고 있다. 기사는 주로 인디 밴드의 수상이나 앨범 발매 등의 활동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주체적으로 작성을 한다. 인터뷰는 인디 밴드와 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기자가 인디 밴드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준비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인터뷰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인디 밴드가 얼마나 인터뷰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웹사이트와 SNS는 인디 밴드가 홍보의 목적으로 스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 공연장이나 레이블, 팬 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도 하면서 인디 밴드와 관련된 공연 안내, 인디 밴드 소개,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www.kci.go.kr

2) 공연 활동에서의 특징

수집한 자료 중 '공연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무대 공연', '버스킹 공연', '대회 참석', '사회적 운동의 연대'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공연 활동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대 공연이다. 공연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인디 밴드가 공연을 하는 것은 주된 공연 활동 중에 하나이다. 무대 공연은 크게 '클럽 공연'과 '행사 공연'으로 나뉘어 진다. 클럽 공연과 행사 공연 모두 무대라는 장소에서 공연을 하지만 두 공연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클럽에서 진행하는 공연은 클럽에 돈을 지불하여 대관을 하고 공연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클럽에 소속되어 공연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공연을 하기 위해 대관료나 회비 등 대가를 지불하고 인디 밴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공연을 이끌어 나간다.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지만 공연을 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에 비해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공연을 통해 수익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밴드를 계속 알리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클럽 공연을 진행한다.

반면 행사 공연은 행사 주최자의 의도에 따라 공연의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게 되고 그 흐름에 인디 밴드가 맞춰서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어떤 밴드가 공연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행사 주최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만큼 인디 밴드에게 자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관객도 인디 밴드를 보러 온 관객이라기 보다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겸사겸사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디 밴드도 공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행사에서 공연을 한 보상으로 받는 공연비에 대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밴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일반적인 인디 밴드 활동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행사 공연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www.kci.go.kr

두 번째 특징은 버스킹 공연이다. 버스킹이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된 용어로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시사상식사전, 2016). 버스킹은 무대에서 관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관객을 찾아가 자유롭게 공연을 하는 것이다.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야 하는 무대 공연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가 인디 밴드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을 하면서도, 무대와 다르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다양한 공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버스킹을 하면서 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길거리 공연을 본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공연을 하는 인디 밴드도 버스킹 공연에서 수익을 바라는 것보단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대회 참석이다. 인디 밴드가 이름을 알리기에는 대회에 참석해 수상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인디 밴드는 자신들이 찾지 않더라도 먼저 인터뷰나 행사 요청이 들어오면서 밴드의 홍보가 지속된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인디 밴드가 존재하고, 하루에도 몇 팀씩 생겨나고 사라지는 때에 쌓아놓은 기반 없이 활동을 지속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그런 점에서 콘테스트나 경연대회 같은 대회는 참가 희망자에게 많은 제한을 두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인디 밴드라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대회에서는 어떤 주제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과제를 통해 실력은 기본이고 관객과의 소통과 호응도 등 다양한 면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대회에서 수상한다는 것은 음악적 실력과 밴드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고, 수상과 동시에 받게 되는 인터뷰 요청을 비롯하여 인디 밴드가 알려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인디 밴드는 자신을 좀더 알리고 능력을 인정받고자 대회에 꾸준히 참석하게 된다.

네 번째 특징은 사회적 운동의 연대이다. 인디 밴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늘 주변과, 나아가서

www.kci.go.kr

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디 밴드는 보고 겪은 사회 문제에 대해 음악을 만들어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운동을 함께 하기도 한다.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투쟁 운동 현장에서도 음악을 통해 부드럽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디 밴드가 사회적 운동과 연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인디 밴드가 이미 연대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다.

어떤 수익도 바랄 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디 밴드는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자신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음악적으로 잘 활용하여 사회적 운동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인디 밴드의 공연 활동에는 인디 밴드가 처한 상황이 담겨 있다. 단순히 밴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밴드 활동을 계속하는 데에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의 공연을 하고 여러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자유로움이라는 장점을 살려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운동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화된 인디 밴드의 활동을 연구한다면, 인디 밴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알 수 있고, 인디 밴드가 활동하던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

3) 가사에서의 특징

수집한 자료 중 '가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상의 이야기', '위로와 격려 전하기', '사회 참여와 발언 '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가사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일상의 이야기이다. 소재를 접하기가 쉽고 창작 과정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창작자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상생활의 이야기일 것이다. 다음은 인디 밴드의 멤버가 직접 경

www.kci.go.kr

험한 것을 토대로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다.

〈여울비 - 창 밖에 비가 와〉
지루한 3교시 수학 시간 멍하니 턱을 괴고서
오늘따라 게을러진 시계가 참 맘에 안 들어
연필을 입술 위에 올리고 지우갤 쌓아 보아도
왠지 모를 울적함이 떠나가지를 않아
내 맘을 설레게 할 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줬으면
등에서 날개가 돋아
하늘을 날 것 같은 일이 있었으면
창 밖에 비가 와! 창 밖에 비가 와!
지루한 햇빛에 맑았던 하늘에
거짓말처럼 빗방울이 창을 두드려
창 밖에 비가 와! 창 밖에 비가 와!
오늘은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포근한 안방 침대 속으로
날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창 밖에 비가 와!
(후략) (여울비의 '창 밖에 비가 와')

이 노래는 어린 시절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 비가 오는 날이면 방과 후에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계실 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창 밖에 비가 와'라는 가사에 비가 오는 걸 보며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집에 갈 생각에 기대를 했던 마음을 담아 만든 노래이다.

두 번째 특징은 위로와 격려 전하기이다. 노래를 통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희망의 응원을 보내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다.

www.kci.go.kr

〈여울비 - 아미〉
밤하늘에 고이 잠든 달을 따다가
네 눈 위에 얹은 듯이 아름답구나
한창 붉은 철쭉 같이 웃는 얼굴이
어쩜 그리 하늘하니 고울 수 있누
세상에 어떤 꽃들을 너에게 비기랴
사시사철 너의 뺨은 봄꽃이어라
세상에 어떤 그림을 너에게 비기랴
그 어떤 자랑도 네게선 잠잠할지라
참 곱도다 너 나의 아미여
넘치도록 너 사랑 받거라
참 곱도다 너 나의 아미여
네 얼굴에 그늘은 없어라
(중략)
그 어떤 자랑도 네게선 잠잠할지라
그 어떤 사랑도 너에겐 마땅하여라
(여울비의 '아미')

이 노래는 위안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만든 노래로, 어느 할머니가 꽃다운 여자를 어루만지며 예쁘다고 이야기해주며, '예쁘다'라는 말이 일부에게만 허락된 특권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여자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예쁘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 참여와 발언이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많은 영향을 끼친 이슈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느낀 감정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음악이다.

〈콜밴 - 서초동 점집〉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그곳에는
장미 넝쿨로 둘러쌓인 점집이 하나 있네.

www.kci.go.kr

그곳 간판은 자유, 평등, 정의가 새겨있네.
14명의 검은 망토 점쟁이가 요상하게 점을 치네.
난생처음 가본 법원, 변호사 살돈도 없어요.
못배운게 죄인게 알아듣게 얘기해요.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신내린 무당인가.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개떡같은 법원이다.
그곳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정치판결, 파기환송 집어치고 법대로 하자.
난생처음 가본 법원, 변호사 살돈도 없어요.
못배운게 죄인게 알아듣게 얘기해요.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신내린 무당인가.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개떡같은 법원이다.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신내린 무당인가.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개떡같은 법원이다.
개떡같은 법원이다. 개떡같은 법원이다.
개떡같은 법원이다.
(콜밴의 '서초동 점집')

이 노래는 2014년 6월 콜텍의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반사회적인 판결을 내린 내용을 바탕으로, 상식을 벗어나 권력과 자본의 노예가 된 사법부를 '서초동 점집'으로, 법관들을 담아 '검은 망토 점쟁이'로 풍자하며 만든 노래이다.

인디 음악의 창작 과정에는 일상의 이야기나 위로와 격려 전하기, 혹은 사회 참여와 발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단순하게 이야기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본인의 경험을 통해 그 안에서 느낀 감정을 녹여내면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인디 음악에는 창작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본인의 음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인 창작자가 사회에서 경험한 일을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지는 음악에는 당대의

www.kci.go.kr

사회상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록화된 인디 음악의 가사를 연구한다면, 해당 음악이 만들어진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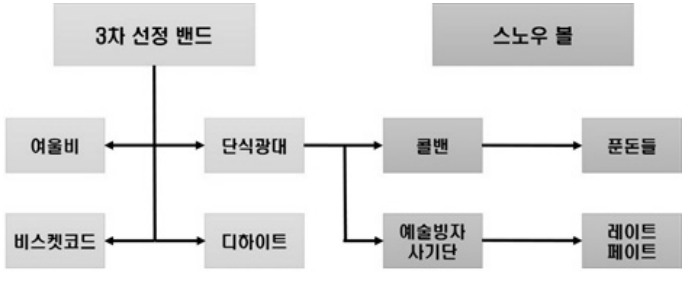
4. 심층인터뷰를 통한 인디 밴드 내러티브

1) 심층인터뷰 프로세스

한국 인디 밴드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것 이상으로 한국 인디 밴드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디 밴드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기록을 통해 대상을 얼마나 잘 재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기록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8개 인디 밴드의 선정과정을 나타낸 결과이다. 3차 선정으로 '여울비', '단식광대', '비스켓코드', '디하이트' 등 4개의 인디 밴드를 선정하였고, 그 중 단식광대의 소개로 '콜밴'과 '예술빙자사기단'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콜밴의 소개로 '푼돈들'을 선정하였고, 예술빙자사기단을 검토하던 중 알게 된 '매거진 충무로'에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 '레이트 페이트'를 선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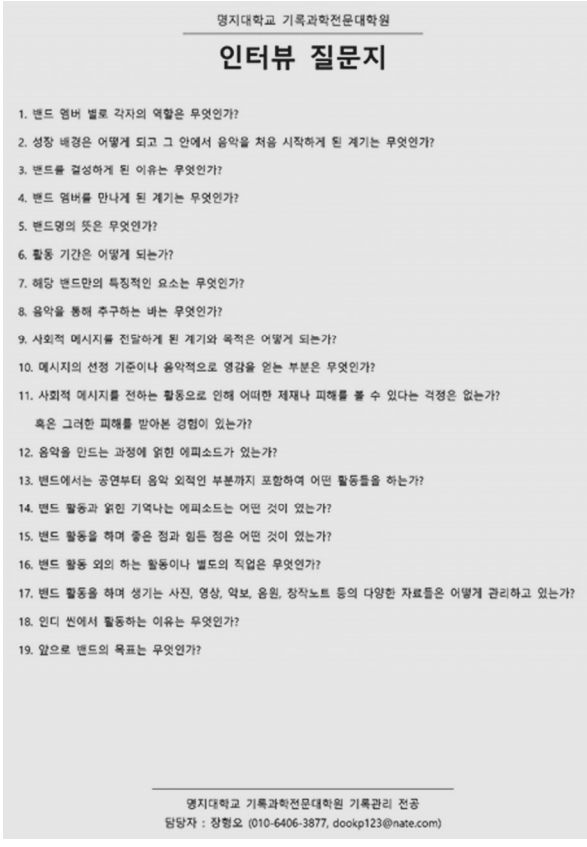
〈그림 3〉 심층인터뷰 대상 선정과정



www.kci.go.kr

앞서 진행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인디 밴드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본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사전에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의 특징에 따라 기본 인터뷰 질문지에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각 대상에 맞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4〉는 인디 밴드의 특징을 고려하여 작성한 기본 인터뷰 질문지 양식이다.

〈그림 4〉 기본 인터뷰 질문지 양식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

인터뷰 질문지

1. 밴드 멤버 별로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성장 배경은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3. 밴드를 결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 밴드 멤버를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5. 밴드명의 뜻은 무엇인가?
6.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7. 해당 밴드만의 특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8. 음악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9.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계기와 목적은 어떻게 되는가?
10. 메시지의 선정 기준이나 음악적으로 영감을 얻는 부분은 무엇인가?
11.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제재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은 없는가? 혹은 그러한 피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12.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가?
13. 밴드에서는 공연부터 음악 외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14. 밴드 활동과 얽힌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밴드 활동을 하며 좋은 점과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16. 밴드 활동 외의 하는 활동이나 별도의 직업은 무엇인가?
17. 밴드 활동을 하며 생기는 사진, 영상, 악보, 음원, 창작노트 등의 다양한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18. 인디 씬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 앞으로 밴드의 목표는 무엇인가?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담당자 : 장형오 (010-6406-3877, dookp123@nate.com)

www.kci.go.kr

인터뷰 대상 선정 후에는 사전에 질문지를 요약하여 보내주어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터뷰는 충분한 인터뷰 시간이 보장될 수 있으면서 대상이 인터뷰가 용이한 장소와 일정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질적연구 간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 수집되는 자료와 활용 목적, 연구참여자의 보호방안 등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의 숙지 여부를 파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이 작성한 연구참여 동의서는 전자화파일(스캔자료)로 사본을 제공하였다.

다음 〈표 4〉는 심층인터뷰 진행상황을 요약한 것으로 심층인터뷰 참여 인원은 대상 밴드 당 평균 약 2명이며, 평균 참여율은 54%, 평균 인터뷰 시간은 약 76분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인터뷰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자가 모두 지불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답으로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표 4〉 심층인터뷰 진행상황 요약

인터뷰 대상	인터뷰 일시	참여 인원	인터뷰 시간
단식광대	2016. 10. 22	2명 / 2명 (100%)	16:00 ~ 17:00
예술빙자사기단	2016. 10. 28	2명 / 3명 (67%)	14:00 ~ 15:15
디하이트	2016. 11. 01	3명 / 4명 (75%)	19:30 ~ 20:30
여울비	2016. 11. 03	1명 / 4명 (25%)	14:00 ~ 14:40
콜밴	2016. 11. 10	1명 / 3명 (33%)	11:00 ~ 13:30
비스켓코드	2016. 11. 10	1명 / 4명 (25%)	15:20 ~ 16:15
레이트 페이트	2016. 11. 13	2명 / 4명 (50%)	12:30 ~ 13:15
푼돈들	2016. 11. 16	3명 / 4명 (75%)	21:15 ~ 23:15

다음 〈표 5〉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층인터뷰 참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심층인터뷰 참여자를 배치한 것이다. 해당 표 내용을 기반으로 질적연구 결과와 내러티브 탐구에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www.kci.go.kr

〈표 5〉 심층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대상	참여 멤버 1	참여 멤버 2	참여 멤버 3
A밴드	a멤버		
B밴드	a멤버		
C밴드	a멤버		
D밴드	a멤버	b멤버	
E밴드	a멤버	b멤버	
F밴드	a멤버	b멤버	
G밴드	a멤버	b멤버	c멤버
H밴드	a멤버	b멤버	c멤버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생계적 궁핍함', '멤버교체의 어려움', '경험기반의 창작', '전문성 지향'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생계적 궁핍함이다. 한국에서의 인디 밴드는 생계 유지수단이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직업적 고려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디 밴드의 멤버는 밴드 활동 외에 생계유지 수단으로의 직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밴드 활동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밴드 활동에 집중하기 위하여 일용직이나 시간 계약직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음악을 만드는 게 직업인데, 게임 음악을 만들고,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넷마블에 있는데, 큰 회사에 많이 다녔고, 요즘은 모바일 게임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PC게임은 잘 만들지는 않지만, 지금은 넷마블 음악 팀에서 팀장을 하면서 게임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 기타 치는 친구는 기타 관련 제작 회사에서 일하고, 다들 음악과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는(B밴드 a멤버)"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백화점에서 옷도 팔고,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숯불도 피우고, 연기 엑스트라도 해보고, 노가다도 늘 하고 있고, 옥상에 물통 청소도 하고, 아파트 소독도 하고 정말 해본 일이 많기도(E밴드 b멤버)" 하고, "이 친구는 맥도날드에서 일

www.kci.go.kr

을 하고, 저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아직까진 배고픈 것은 겪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벌면서 음악을 하고 있는(H밴드 a멤버)" 것처럼 밴드 활동을 하기 위해 안정적이지 못한 생계유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계적 궁핍함으로 인해 인디 밴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주업은 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디 밴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할만한 돈을 벌기에는 아직 충분하지가 않아서 학원 일을 하고 있(F밴드 b멤버)"거나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밴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게 한 2~3년 전쯤인데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서 지금은 알바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밴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멤버도 일을 하면서 밴드를 병행하고 있는(F밴드 a멤버)" 것처럼 밴드 활동을 본인의 주된 직업으로 생각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회사도 다니고 있고, 이분은 학원 선생님이고, 저 친구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카페 사장님이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고, 아이 셋을 키우고 밴드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막 음악 하나만 선택해서 산다기 보다도, 자기 일도 하면서 틈틈이(G밴드 a멤버)"하고 "아무래도 오래했고 각자 자리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이도 삼십 대보다 사십 대에 가까운 나이가 되니까 현실적이 될 수 밖에 없어서 해체하지 않는 것, 계속 음악을 하는 것(B밴드 a멤버)"을 고려하여 직업적 목표로 삼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대하는 경우이다.

두 경우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음악에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임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조금 힘들더라도 음악에 집중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음악을 하기 위해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고, 두 경우의 차이는 단거리 육상선수와 장거리 육상선수가 같은 육상이라는 종목 안에서 각자 영역에 맞게 다른 훈련방식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두 번째 특징은 멤버교체의 어려움이다. 인디 밴드는 각자 밴드마다의 성격과 추구하는 음악성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멤버간의 단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하지만 밴드도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멤버 개인의 사정이나 팀 내 분열 등 다양한 이유로 멤버가 교체되고 심지어 밴드가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팀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겨서, 리더가 성격이 더러운데 고집이 강한 타입이라 싸움이 생겨서, 나머지 멤버들이 등을 돌리고 저는 가운데서 중재를 하다가 안돼서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서고 저만 계속 그 형과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팀 리더는 밴드 생활을 십 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 크고 작은 공연들도 많이 겪어보았고, 몇 년 전에 새로 같이 하게 된 동생들은 경험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안 만들어지고, 공연 같은 걸 많이 해봐도, 예전에 합을 맞춰왔던 그 멤버들과 같이 하는 것과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되(B밴드 a멤버)"는 것처럼 멤버가 교체 된 이후에 기존 멤버와 새로운 멤버간의 차이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리고 "건반을 연주하는 멤버가 공석인 상태인데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면 공연준비와 앨범작업에 들어가고자(D밴드 a멤버)" 했지만 새로운 멤버를 장기간 구하지 못해 밴드 활동을 부득이하게 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종종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드럼 치던 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면서 생긴 공석을 멤버 내부에서 해결하기로 하여 제가 우연히 시작하게(H밴드 b멤버)" 된 것처럼 밴드 내에서 악기파트를 변경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숙련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뮬'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팀이 있고, 글도 제가 하고 싶게끔 잘 쓰여있으면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는 팀이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를 구했다고(E밴드 b멤버)" 하거나, "그쪽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본 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www.kci.go.kr

서 애가 소개해준 애도 똑같겠거니 해서 거부를 하면서, 좀더 같이하다가 차차 찾겠다고(B밴드 a멤버)"하는 것처럼 본인이 아무리 밴드에 들어가길 원해도 밴드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경험기반의 창작이다. 인디 밴드는 창작에 있어 주류로부터 독립하여 원하는 대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일상생활의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단순하게 이야기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본인의 경험을 통해 그 안에서 느낀 감정을 녹여내면서 만드는 경험기반의 창작을 한다.

"저희들이 대법에서 패소를 하고, 대법원이 법 조항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를 예견해서 판결을 한 것인데, 그렇다 보니 사실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예언자 내지는 무속인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서초동 점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문'같은 경우는 가사를 쓰신 분이 매번 집회 때 이야기 하던 부분을 가사로 옮겼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가사에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노동자들 보다 더 처참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우리의 주문 아닌 주문을 가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고공'은 2008년도에 제가 한강 송전탑에서 농성을 했었는데 그 때를 생각하면서 쓴 가사(C밴드 a멤버)"나 "집회에 참석하고 그때 느낀 감정을 곡으로 표현하고 싶었던(D밴드 b멤버)" 것처럼 경험을 토대로 음악을 만든다.

한편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사연을 듣고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A밴드 a멤버)" "뉴스 기사 내용을 보고 느낀 것(A밴드 a멤버)"이나 "뉴스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뉴스나 책 등(E밴드 a멤버)", "뉴스에서 많이, 사람은 감정이 내가 경험한 것도 있는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것 보다는 약간 제삼자가 경험한 것을 어떤 매체로 듣거나, 뉴스로 듣거나, 책으로 영화로 이런걸 들었을 때(F밴드 a멤버)" 느껴지는 바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결국 단순하게 이야기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

www.kci.go.kr

접 경험을 했거나 혹은 타인이 경험한 것에서 느낀 감정을 녹여내면서 음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경험 기반의 창작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전문성 지향이다. 인디 밴드가 받는 흔한 오해는 실력이 없어도 밴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곡을 따라 연주하는 카피밴드의 경우에는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피밴드와 인디 밴드의 확실한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인디 밴드는 밴드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을 각 악기 파트 멤버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음악을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이 부분은 단순히 연주 실력을 넘어 다른 악기에 대한 이해와 화성악, 스케일(Scale) 등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인디 밴드는 스스로 만들어 낸 자신들의 음악이기 때문에 더욱 곡의 완성도에 욕심을 낸다.

"곡 하나가 거의 1년에 하나씩 나오는데, 저희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타이틀 감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싹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곡이 얼마 안 나와있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막상 다 만들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하고 합니다. 그런 버린 곡까지 모으면 정규앨범을 몇 개를 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면 누구나 앨범을 낼 수 있겠지만, 좋은 곡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몇 곡 없습니다.(H밴드 a멤버)"라고 하며 창작 과정에서 심사숙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거쳐 정말 익숙해지고 그 곡들의 한계를 확인하고 정말 만족해서 정수만 남은 곡들을 모아서 내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낫지 않겠냐(D밴드 a멤버)"고 하며 만든 음악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을 하고 완성도를 높여 가치 있는 음악만 남기는 경우도 있다.

인디 밴드가 실력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결국 오해에 불과하며, 오히려 음악의 창작과정의 모든 부분을 직접 하는 인디 밴드는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곡의 완성도를 높여 진정 가치 있는 음악

www.kci.go.kr

을 만들고자 하는 전문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결과로 밴드의 유형이 '사회운동의 도구', '메이저가수 준비 과정', '전문적 취미 활동'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고 클랜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하여 '피켓을 대신한 기타', '미래의 비틀즈를 꿈꾸며', '평생을 함께할 친구'라는 3가지 주제로 기술할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자가 참여자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다시이야기' 함으로써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염지숙 2009).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학술적인 기술이 아닌 문학적인 기술을 통해 3가지 주제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하고자 한다.

2) 피켓을 대신한 기타

폐업한 공장 한 켠 "한국엔 더 이상 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피켓이 붙어있는 농성장에는 10여명의 조합원이 피켓을 든 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평소 같았으면 침묵만이 깔려있을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한 줄기의 기타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미소를 지어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투쟁을 이어온 조합원들의 얼굴에 어느새 작은 초승달이 하나하나 입가에 걸려있다.

조합원 김행동씨가 이 자리를 지킨 것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도 처음엔 여느 조합원과 다를 바 없이 자리에 나와 피켓을 흔들고 목소리를 낼 뿐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낸 만큼 금방 복직이 될 거라는 희망은 해가 지날수록 손 안의 모래처럼 사라져갔고, 함께하던 사람들 또한 줄어만 갔다. 김행동씨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기타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런지 몇몇 인디 밴드에서 우리를 도와 문화제를 진행해 준 것이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www.kci.go.kr

그러던 어느 날, 투쟁을 도와주던 한 인디 밴드 멤버가 “형님들 도대체 5년 동안 뭐하셨냐, 처음 투쟁 시작하면서 기타라도 좀 배우고 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베테랑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 텐데, 맨날 팔뚝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시민들도 보다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상황도 알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뭘 했냐? (C밴드 a멤버)”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 사실 수십 년을 기타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지만 “조합원 중 기타를 칠 줄 아는 조합원이 한 명도(C밴드 a멤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음악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김행동씨는 바로 조합원 동기들과 공유해서 “한번 악기도 좀 배울 겸 밴드를 한번 해보자, 밴드를 하면서 음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보자(C밴드 a멤버)”고 설득하게 되었다. 다함께 머리를 모아 어떻게 악기를 구매할 것이고 누가 악기 지도를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했고, “소셜 펀딩을 하자, 해서 펀딩을 해서 악기 구매를 하고 교습해줄 사람은 같이 지지해주는 인디 밴드도 많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 속에서 시간이 되는 인원을 찾아보자(C밴드 a멤버)”고 결정하였다.

투쟁을 한 기간이 짧지 않아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많을 테니, 그만큼 펀딩이 금방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결국 펀딩은 목표금액에 한참 못 미쳐 그들의 “돈을 넣어 500만원을 채워 악기 구매를 하게(C밴드 a멤버)” 되었다. 그래도 다행이 뜻을 함께하는 인디 밴드 안에서 교습을 해 줄 사람은 금방 구할 수 있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명이서 기타 2개, 베이스 1개, 카혼 1개로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이 가족 문제로 인해 투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C밴드 a멤버)” 3명이서 교습을 받으며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른 멤버를 더 구해보고자 했지만 “나이 오십 먹고 안 하던 것을 하려고 보니(C밴드 a멤버)” 쉽사리 함께 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다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www.kci.go.kr

투쟁을 그만두는 일도 많은데, 평생 악기라곤 만들기만 해봤던 사람들에게 밴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이미 이제 손가락이고 뭐고 다 굳은 상태(C밴드 a멤버)"라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은 거의 늘지 않고 손가락에 굳은 살만 늘어갔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없어 어설프게나마 계속 무대에 서다 보니 어느 새 그들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때까지는 가요들을 따라 연주하고 불렀는데, "언제까지 카피곡만 할꺼냐, 형님들도 자작곡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며 한 밴드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느끼는 바를 얘기하고 싶은 가슴 속의 울림을 계속(D밴드 a멤버)" 받아왔고,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을 만들어 부른다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송전탑에서 농성을 했었는데 그 때를 생각하면서 가사(C밴드 a멤버)"를 쓰고 손쉽게 연주할 수 있는 코드로 멜로디를 그리며 그들의 음악을 하나씩 만들어갔다. 그 덕분인지 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면 그들의 음악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오랜 기간을 투쟁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도 곁을 떠나고 "길거리가 집 같고, 집이 어색할 때도(C밴드 a멤버)"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비 정도는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C밴드 a멤버)" 있어서 굶어 죽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문화제에서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소하게 나마 받는 공연비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밴드를 통해서 그들의 사정을 널리 알리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 해올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제 그들의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뜻을 함께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이 곁을 지켜주는 만큼 더더욱 힘을 내 밴드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

www.kci.go.kr

이다. 투쟁이 끝나더라도 밴드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후배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투쟁사업장 같은 데에 연대하면서 계속 이어져갔으면 하는 바람(C밴드 a멤버)”으로 오늘도 김행동씨는 기타를 잡는다.

3) 미래의 비틀즈를 꿈꾸며

새벽 1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부쩍 늘어난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서 밴드 연습까지 빠짐없이 마치고 그제서야 침대에 몸을 뉘였다. 내일은 오후에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만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자, 어느새 나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지난 주 음악에 미쳐 사는 내가 싫다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덕분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파왔던 게 이제야 좀 나아지는 듯 해서 그 느낌을 음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떠오른 음악이 생각만큼 맘에 들지 않아 쓰고 있던 종이를 구겨 던지고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이번에는 멜로디 대신 걱정거리가 머리 속을 맴돈다. “나이 들어서 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H밴드 b멤버)”해서 “적어도 30살 이전에 떠야(H밴드 b멤버)” 겠다고 다짐하고, “제일 황금 같은 스무 살의 2년이라는 시간을 뺏는다는 것은 아닌 것(H밴드 b멤버)”같다는 생각에 군대도 뒤로 미뤘다. 공연 활동 겸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행사 섭외가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있고 그걸로도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끼리 밴드를 만든 이후로 이렇게 생활 한 것도 7년이 되어 밴드 자체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게을러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음악을 하려던 것인지 돈을 벌려고 한 것인지 고민(H밴드 a멤버)”을 하게 된다.

그 동안 밴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디 밴드 경연 대회를 앞두고 멤버 중 한 명이 갑작스레 군대를 가게 되면서 생긴 공백

www.kci.go.kr

을 메우기 위해 새 멤버를 찾아보았는데 도저히 우리와 맞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오랜 기간 준비한 대회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도 있었다. 결국 기타 치던 친구가 기타를 포기하고 악기를 바꾸면서 다행히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새로운 멤버를 구하는 걱정은 덜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몇 년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밴드가 알려지지가 않아 동네 행사에서만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다. 행사에서 "유명한 밴드를 알게 되어, 그 분들을 통해 클럽에서 공연도 하게(H밴드 a멤버)" 되었고, 자체적으로는 "실력도 보여주면서 알리기 위한 수단(H밴드 b멤버)"으로 유행하는 노래들을 우리 스타일로 편곡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이런 노력덕분인지 밴드가 많이 알려지게 되어 "밴드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투어도 해봤고, 해외공연도 기회가 되어서 한번 가본적도(F밴드 a멤버)" 있고, "콜라보레이션으로 꼭 음악끼리만 결합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랑 같이하는 행사(F밴드 b멤버)"도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누군가를 돕기 위해 주최하는 것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 뜻 깊은 공연도 많아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H밴드 a멤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페이 없이, 무료공연만으로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좋기 때문에, 거절은 절대 안하고 부탁 받는 대로 다 오케이(H밴드 b멤버)"하게 되었다.

지난 일을 생각하다 보니 헛되이 돈만 바라보고 음악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다. 이런 고민을 나만 한 것은 아닌지 멤버끼리 모였을 때 "상업적인 음악인지 우리의 음악인지 이야기를 했고, 트렌드하면서 우리의 음악, 그러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것(H밴드 a멤버)"은 아닌 음악을 만들자는 대화도 나눴다. 멤버 모두가 메이저 씬으로 가서 성공하는 것을 꿈꾸지만, "막 메이저에 목을 매다는 것은(H밴드 b멤버)" 아니고 "다 떠나서 경쟁력 있는 음악을 하려는 것인데(H밴드 b멤버)" "놀 수 있는 운동장이 메이저라고 생각(H밴드 a멤버)"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 "어차피 음악이라는

www.kci.go.kr

것은 누군가 들어야 음악이 되는 것(F밴드 a멤버)"이고 "대중이 사랑하는 음악을 하는 게 음악을 하는 최종목표(F밴드 b멤버)"이기 때문에 메이저를 꿈꾸면서도 인디 밴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다.

음악을 하나하나 만들 때에도 그런 인디 밴드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 것 같은 게, 만들다가도 "조금만 이상하면 쓰고 싶은 생각이(H밴드 b멤버)" 없어지고, "막상 다 만들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H밴드 a멤버)"를 한다. 그렇게 심사숙고하며 음악을 만들다 보니 "곡 하나가 거의 1년에 하나씩(H밴드 a멤버)" 나오고 "버린 곡까지 모으면 정규앨범을 몇 개를 내고도 남았을 것(H밴드 b멤버)"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음악을 만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큼 애착도 안 가게 되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과연 대중이 좋아할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 다시 하는 게 낫다고 본다. 지금 이렇게 경험을 쌓아놓아야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했지만 사실 우리 밴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처럼 해 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음악을 접하고 하면서 기뻤던 기분 그대로 하면서(H밴드 b멤버)" "음악을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F밴드 a멤버)"이다. 메이저 씬으로 얼른 올라가야겠다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길지 않은 인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게 모토(F밴드 b멤버)"인 만큼 내일 하루를 더 충실히 살자는 다짐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든다.

4) 평생을 함께할 친구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역시 합주만한 게 없는 것 같다. 마

www.kci.go.kr

냥 음악이 하고 싶어서 무작정 시작하게 된 밴드가 어느새 15년이 되어버리니까, “계속 해왔고, 크고 작은 공연들도 많이 겪어 (B밴드 a멤버)”보았던 멤버들과 이제는 “거의 형제 같은 사이(B밴드 a멤버)”가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멤버 모두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밴드를 같이 하고 있고, 한 멤버는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밴드 활동을(G밴드 a멤버)” 하고 있다. “막 음악 하나만 선택해서 산다기보다, 자기 일도 하면서 틈틈이(G밴드 a멤버)” 취미 생활의 하나로 계속 이어오다 보니 이제는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된 것(G밴드 b멤버)” 같다.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먹고 살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B밴드 a멤버)”하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대충하지 말자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대충 만나서 합주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체계로 만들고 제대로 해보자(B밴드 a멤버)”는 생각으로 취미 생활이면서도 나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밴드 활동이지만 그만큼 잘 유지해나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더 형이 “그냥 음악이라는 거는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하면서 그냥 같이 하는 것(D밴드 a멤버)”이지만 “우리가 하는 음악의 완벽을 기하고 무대 올라갔을 때 매너나 그런걸 가볍게 보이거나 하지 않게(D밴드 a멤버)” 음악을 할 때 만큼은 프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자고 한 것이 우리 밴드의 성격을 잡아준 것 같다.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흘려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소비되는 음악(B밴드 a멤버)”은 “포르노 문화스럽다고 생각(B밴드 a멤버)”이 들고 “조금 더 사회적인 이야기들과 당시에 문제스럽게 느껴지는 것들(B밴드 a멤버)”로 음악을 창작하게 되었다. 요즘은 워낙 “사랑노래가 많은데 사랑이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좀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나 삶에 큰 변화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사건들을 노래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E

www.kci.go.kr

밴드 a멤버)"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요즘에는 "뉴스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E밴드 a멤버)"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끔찍한 일인데, 우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E밴드 a멤버)" 같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안에서 내가 느낀 감정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분명 사람들은 불만도 많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음악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B밴드 a멤버)"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냐는 나름의 자부심인 것이다.

처음 밴드를 시작할 때엔 젊음이라는 미명하에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해본 것 같다. 무전투어로 "돈 없이 정말 앨범만 달랑 들고 친한 밴드 2팀과 같이 세 팀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주, 대구, 경주, 부산 이렇게 몇 군데 정말 돈 없이 무작정 내려가서(B밴드 a멤버)" 클럽을 일주일씩 대관을 하고 "대관료를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입장료가 없는 대신 앨범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한 달을(B밴드 a멤버)" 보냈다. "그때 주머니에 2만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한 달을 살았다(B밴드 a멤버)"는 게 지금도 사실 믿기지는 않는다. 그 때에 비하면 요즘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계속 새로운 노력들을 하려고 한다. "곡마다 비디오를 다 만들고, 평소에 이런저런 커버 영상도 종종 만들고(B밴드 a멤버)" SNS로 공유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새로움을 시도하면서도 우리를 "좀더 노출 시킬 수 있는 걸 찾다 보니(B밴드 a멤버)" "공연 한 번해서 보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건(B밴드 a멤버)" 다 도전 해보고 있다.

다만 밴드를 계속 해오면서 느낀 안타까운 점은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 이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름을 알리는 것도 힘들고,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것도 늘 같은 밴드들이 돌게 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는 것(B밴드 a멤버)"같고 "연주를 한다고 보상차원에서 제대로

www.kci.go.kr

이뤄지는 것도 없고, 아무리 좋아서 한다고 해도 아무런 어떠한 메아리나 보상이 오는 게 없으니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E밴드 a멤버)" 든다. "대중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E밴드 a멤버)" 싶기도 하고, "좋아서 한다고 해도 투입되는 금액이 너무(E밴드 a멤버)" 많아서 단순히 취미로만 즐기면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참 아이러니한 게 나뿐만 아니라 멤버 모두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밴드를 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여 "해체하지 않는 것, 계속 음악을 하는 것(B밴드 a멤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담을 느끼면서 힘든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원대한 포부 같은 건(B밴드 a멤버)" 없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끝까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B밴드 a멤버)"을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밴드를 하는 것을 단순히 취미로만 여기지 않고 정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다. 가족 같은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해나가는 삶의 일부분이라니, 정말 멋지지 않은가?

5. 결론

한국에서의 인디 음악은 민중문화운동의 영향과 '1980년대 사회 변혁 운동의 대안'으로서 채택된 '록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면서 단순한 대형 기획사의 자본과 유통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구조적인 부분의 저항에서 더 나아가 주류, 지배층 그리고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저항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지는 음악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데, 대중음악과 대중음악가의 아카이브 연구는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인디 음악과 인디 밴드의 기록화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저항하고자 하

www.kci.go.kr

는 창작자의 의도를 음악에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인디 음악을, 그리고 인디 음악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인디 밴드에 대한 기록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디 밴드가 인디 음악을 만드는 배경, 인디 음악에 담긴 창작자의 의도, 메시지 등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디 문화와 인디 음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디 음악 및 인디 음악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인디 음악이 가지는 특이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 인디 음악이 가지는 특징을 확인하여 한국 인디 밴드의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디 음악과 인디 밴드 관련 단행본, 간행물, 인터뷰 기사, 뉴스 기사, 인디 밴드 및 공연장 홈페이지, SNS, 공연 영상, 음원, 가사 등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인디 밴드 활동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의 수집 범주를 기능과 활동으로 설정하여 창작 활동, 공연 활동, 대중매체의 3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인디 밴드 활동 중 공연 활동과 가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공연 활동에서는 무대 공연, 버스킹 공연, 대회 참석, 사회적 운동의 연대의 4가지 범주로, 가사에서는 일상의 이야기, 위로와 격려 전하기, 사회 참여와 발언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문헌연구에서 설정한 범위에서 8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조건을 설정하고 작성한 리스트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과 스노우 볼(Snow ball) 형식으로 소개받은 대상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을 생계적 궁핍함, 멤버교체의 어려움, 경험기반의 창작, 전문성 지향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밴드 유형을 사회운동의

www.kci.go.kr

도구, 메이저가수 준비과정, 전문적 취미 활동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하여 기술하여 이야기의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인디 밴드 활동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인디 밴드 활동의 기록화를 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인디 음악이 주류, 지배층 그리고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저항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디 밴드의 활동에는 대중음악과 달리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창작자의 의도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인디 밴드 활동 기록은 한 시대의 사회상을 재조명하는 도구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참고문헌〉

김민규. 2002. 한국 인디문화(indie culture)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나장함. 2006. 질적 연구의 다양한 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교육평가연구』, 19(1), 265-283.

류수진. 2005. 홍대 앞 인디문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전공 석사학위논문.

류한조, 이희숙. 2010. 재현 중심의 기록학 - 담기, 관리하기, 보기. 『기록학연구』, 24, 3-40.

명현. 2014. 국립국악원의 전통공연예술자료 수집현황과 전망 – 국악아카이브 수집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전통공연예술학』, 3, 7-26.

문진형. 2014. 한국 인디 레이블의 성장과정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대중음악제작 · 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박준흠. 2006. 『대한 인디 만세』. 서울: 세미콜론.

삼호뮤직 편집부. 2002. 『파퓰러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서보승. 2012. 국내 인디음악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대중음악제작 · 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신승호. 2012. 수몰지역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신옥순. 2001. 질적 연구의 윤리. 『초등교육연구』, 14(2), 105-117.
안혜영. 2011. 2000년 이후 인디 레이블의 영향력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국 가요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염지숙. 2009.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오진영. 2016. 도시재생기반 도시기록화 사례 연구 - 목포 목원동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유재우. 2011. 전통주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학적 방법론 연구 - 수집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이동준. 2016. 아리랑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제혁. 2012. 비정규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취업 후 조직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기록물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이형수. 2012. 대중음악가 아카이빙 방안 - 김광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법학전문사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호신. 2015.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으로서의 이야기 -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149-172.
이희덕. 2013.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기록 수집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임도빈. 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155-187.
장형오. 2017. 사회상 재조명 도구로써 한국 인디 밴드 활동의 기록화 필요성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장호연, 이용우, 최지선. 1999. 『오프 더 레코드, 인디 록 파일』.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전대영. 2015. 한국 인디 음악시장의 산업구조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Michael Porter의 Five force model의 적용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전병렬. 2016. 대중음악 팬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아카이브 활성화 연구 - 서태지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전호순. 2012. 대중가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조용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조정임. 2011.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주현미, 임진희. 2016. 녹색당 선거활동 기록의 의미 분석 연구.『기록학연구』, 49, 121-173.
주현미, 임진희. 2017.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의 의미와 가치 연구.『기록학연구』, 51, 45-87
주혜성. 2013. K-POP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진현주. 2016.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 '이야기' 컬렉션의 의미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추승엽. 2009. 인디음악 대중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하승이. 2004. 대학기록관의 수집업무 실태에 관한 질적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기록학회. 2008.『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한희동. 2013.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한 대학의 설립자 기록물 수집 방안 - A대학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Schellenberg, Theodore.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원영 역. 2002.『현대기록학 개론』. 서울: 진리탐구).

www.kci.go.kr